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2016년 4월 pp.223~253
한국세무학회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 분석*

-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

신현결** · 정수진***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와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 중 23%에 해당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감사시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기재할 때 외부감사실시내용에 표시된 감사시간을 확인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별도재무제표와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시간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환경 하에서 연결감사시간이 구분표시되지 않는 것은 공시자료 유용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총 감사시간 중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분표시하여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구분표시된 분반기 검토시간 관련 회귀분석 결과, 전체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연도말 재무제표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분반기 검토시간 구분 표시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실시내용의 표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감사참여인원을 표시할 때 감사과정 중 투입인원이 변동되더라도 감사업무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일인당 감사시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추가 투입인원만 표시하고 대체인원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외국어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시간도 전체 감사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외부감사실시내용, 감사시간, 재량적 발생액

* 본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hinhg@konkuk.ac.kr, 주저자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jsj0904@konkuk.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6년 1월 19일 1차수정일 2016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22일

I. 서 론

금융감독원은 2001년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¹⁾ 그리고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의 서식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결산보고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²⁾ 당시 개정된 사업보고서의 서식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소요시간(현장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업 등에 소요된 총 감사시간)을 감사인에게 확인받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사시간 공시의 도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의 적정성과 독립성을 투자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이 외부감사인을 감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후 회계감사의 연구분야에서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에 대한 많은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대체로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재무제표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2014년 11월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좀 더 상세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은 외감규정시행세칙의 개정(2014.12.30.)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2014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부터 동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동 서식에는 감사투입 인원수와 시간,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 감사수행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정은 감독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제도를 10여년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기대했던 것만큼 높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부터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지적하고 유용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2002년부터 총 감사시간만 기재되기 시작하였고, 감사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감사시간을 비롯한 세부적인 감사실시내용이 기재되기 시작하였는데,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발견한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외부이용자가 별도재무제표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이 동일하다고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부감사실시내용에는 전체 감사시간 중 분기 및 반기 검토에 투입된 시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분기 및 반기 검토 수행결과가

1) 금융감독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 2001.12.11.

2) 금융감독원. 「공개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공시강화」, 2003.1.3.

이후 수행되는 연차재무제표의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4년에 처음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감사시간에 초점을 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 간에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에 양자 간에 유의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감사품질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은 연결재무제표 감사까지 포함한 전체 감사시간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시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도재무제표의 재량적발생액과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유의하게 다르다면 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기 및 반기 검토시간이 공시됨에 따라 과거에는 수행하지 못했던 분기 및 반기검토가 연차재무제표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 및 반기검토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면 12월 기말감사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 동안 회계감사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을 동일하게 기재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시간 간의 분석결과와 별도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시간 간의 분석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기 및 반기검토에 투입한 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분기 및 반기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연차재무제표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통계분석 결과에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도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두 보고서의 감사시간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는 것보다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감사와 관련된 시간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외부감사실시내용의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분반기 검토에 투입된 시간 정보가 효율적인 연차재무제표 감사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검증하여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본 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감사시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공시 규정을 살펴보고, 감사시간 공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수행할 연구

모형을 설계하며,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언급한다.

Ⅱ. 감사시간 관련 공시 규정 및 선행연구 검토

1. 감사시간 공시 규정 및 공시 사례

과거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인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1년까지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내용을 보면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당기, 전기 및 전전기의 3개년도 감사인, 감사절차 요약, 특기사항, 감사의견, 감사보수 및 감사소요기간(분반기검토 및 연결감사 포함)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일수로 표시되는 감사기간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지만 감사시간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1월에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결산보고서부터 사업보고서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감사소요기간 대신 총소요시간을 기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증권거래법을 대체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³⁾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기재하였던 감사절차와 특기사항을 더 이상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단순화되었으나, 감사관련 총소요시간은 이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까지 변경사항은 없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을 따른다. 작성기준에서는 공시대상기간 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감사용역체결사항 및 비감사용역체결현황을 기재하도록 관련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용역 체결현황의 양식에 감사보수와 총소요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총소요시간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수습공인회계사 포함)의 현장감사(검토포함)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된 총 시간을 포함한다. 사례 기업인 ○○(주)가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감사용역체결현황을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표 1〉 감사용역 체결현황 공시 사례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백만원)	총소요시간
2014년도	○○회계법인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690	43,411
2013년도	○○회계법인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840	44,702
2012년도	○○회계법인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660	43,572

감사시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가 2002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에 개정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⁴⁾에 따라 감사시간에 대한 세부내역을 2014년부터 감사보고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한 품질관리검토자, 담당이사, 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의 인원수와 감사 참여자별 감사시간과 총 감사시간, 그리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업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지침⁵⁾에 따라 이루어졌다. 동 지침에서 제시한 기재서식에 따라 <표 1>과 동일한 사례 기업의 2014년도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4)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5) 금융감독원. 2014 회계현안 설명회. 2014.12.22.

〈표 2〉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 사례—감사보고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OO주식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 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합 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투입 인원수		7	1	59	7	36	110
투입 시간	분·반기검토	73	276	17,929	1,490	4,674	24,442
	감사	76	166	13,144	1,011	4,572	18,969
	합계	149	442	31,073	2,501	9,246	43,411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14.5.19 ~ 6.5 2014.8.18 ~ 9.5				29	일		
	주요내용	감사위험 평가 및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결정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14.8.25~10.8	30	일	20	명	7	명	시스템 및 내부통제감사	
	2014.12.1~12.23	17	일	34	명	11	명	조기입증 감사	
	2015.1.5~1.28	18	일	35	명	7	명	조회확인 등 입증절차 업데이트	
	2015.1.29~2.24	16	일	20	명	9	명	채무제표검증 및 감사종결절차 수행	
재고자산실사 (입회)	실사(입회)시기	2014.11.28 / 12.1				2	일		
	실사(입회)장소	수원, 기흥, 구미, 광주 사업장 등							
	실사(입회)대상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							
금융자산실사 (입회)	실사(입회)시기	2015.1.5 / 1.6				2	일		
	실사(입회)장소	서초, 기흥 사업장							
	실사(입회)대상	현금, 유가증권 등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O	변호사조회		O
	기타조회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 등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4		회					
	수행시기	2014.4.24 / 7.30 / 10.29 / 2015.1.28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작성지침에서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회사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 2>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과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은 동일하다. 둘째, <표 2>의 감사참여 인원수를 기재할 때 인원이라 함은 당해 감사업무에 참여했던 모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검토자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품질관리검토자와 담당이사가 각각 2명 이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감사과정 중에 투입인원이 바뀌지 않을 경우와 바뀔 경우 총투입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일인당 감사시간 추정치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 및 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실무에서 외국어 감사보고서가 작성, 발행될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어 감사보고서 작성시간을 제외하면 시간당 감사보수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과 <표 2>의 사례기업의 경우 2014년도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이 43,411시간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사전 검토결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재하는 반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직접 기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이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보다 더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양자의 차이가 유의한지 분석한다.

또한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과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동일한 자료인데, 전체 감사시간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포함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시간과 별도재무제표의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표 2>의 감사투입시간에 분반기 검토시간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분반기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효율적인 연차재무제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감사인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주장(박종일·최관, 2009)과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피감사인과의 경제적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상반된 주장(마희영·권수영 2010; Hoitash et al. 2007; Choi et al. 2010)이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도 양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박현영 외(2012)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관된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초기에 수행된 연구인 최관·백원선(1998)의 연구는 감사인을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으로 구분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감사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감사시간에 대한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서 감사시간 자료를 입수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 간 감사보수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Big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보다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6 제휴법인의 감사능력이 뛰어나지만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법인에 비하여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종일과 박수근은 감사계약서상 예상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기대감사시간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기대감사시간 결정요인 차이 등을 검증하였다. 유가증권, 코스닥 및 비상장기업을 통합한 분석에서 기대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은 기업규모, BIG4 제휴법인여부, 감사인 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등 14 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분석결과에서는 6개의 공통된 설명변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및 비상장기업 모두 BIG4 제휴법인의 기대감사시간이 더 많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규안과 박종일의 연구는 감사시간과 신용등급 및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많은 감사시간 투입에 대하여 신용등급에 긍정적 반응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신용대출기관은 감사시간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인 정태범·박희우(2006)의 연구는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할 감사시간이 회사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감사시간의 오류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시간 공시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이 관리목적으로 기록하는 time report 상의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감사시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다. 2004년도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공시되는 감사시간에 상당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최초 공시 후 1~2년 동안 공시된 감사시간의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됨을 보고하였으며, 감사인과의 확인 절차를 통한 감사시간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감사시간 공시와 관련하여 김성환 외(2009)는 2004년부터 감독기관이 감사시간을 감리대상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감사인 및 기업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사시간 공시내용을 조정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시간의 의무 공시 이후 비기대감사시간의 분산과 절대값은 전기 대비 및 시계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 새로운 감리제도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관찰하

지 못하였다. 이는 새로운 감리제도 이전부터 감사인 및 피감사인이 불필요한 감독기관의 주의를 끌거나, 감사품질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감사시간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수영 외(2005)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시간의 감사보수 결정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감사보수의 일반적인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Big5 제휴법인은 국내법인에 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 외에 Big5 제휴법인이 갖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한 평판 그 자체 때문에 더 많은 감사보수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사시간이 직접적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는지를 검증하지는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권수영 외(2006)는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채량적 발생액 이외에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내생적 변수라고 판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Big 감사인으로서 더 많은 감사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시간을 초과하는 감사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감사보수를 청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초과감사시간이 이익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감사시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이익조정이 억제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종일·최관(2009)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채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비정상감사시간과 채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마희영·권수영(2010)은 재무보고의 대용치로서 채량적 발생액 대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비정상감사시간이 많을수록 전기오류수정이 적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함)의 의무도입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이명곤 외(2012)는 IFRS 도입 이후 선택가능한 회계처리가 많아지고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감사시간을 추가 투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가 투입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박현영 외(2012)는 IFRS 도입 전과 후의 감사투입시간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IFRS를 도입하기 전인 2010년과 도입한 후인 2011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FRS 도입 후 채량적 발생액은 감소하였지만 비정상 감사시간과 채량적 발생액 간에는 선행연구와 달리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IFRS 도입 여부와 비정상 감사시간의 상호작용 변수도 채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양의 채량적 발생액을 갖는 일부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류승우 외(2015)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이 억제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사인을 직급별로 구분한 후에도 각 직급별 감사시간이 채량적 발생액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채량적 발생액을 대신하여 감사시간이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창섭 외(2012) 연구에서는 실제이익조정이 클수록 감사투입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감사인이 실제이익조정활동을 감사위험의 증가로 인식하고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Chun et al.(2015)는 재무분석가의 수와 감사시간으로 측정한 감사인의 노력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감사보수의 측정 오류의 문제점을 피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감사보수 대신 한국의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분석가의 수와 감사시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감사인은 감사실패에 따르는 명성의 훼손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Big4 제휴법인이 국내법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4년도 감사보고서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김기영 외(2015)는 회계법인, 감독당국 및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회계법인은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공시를 또 다른 규제감독 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세부적인 감사시간을 공시하였지만 그 이전에 비해 기업의 이익조정이 억제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감사시간을 공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그리스 정도에 불과하여 감사시간에 대한 외국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설문지에 의하여 감사시간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Caramanis and Lennox(2008)은 1994년부터 2002년 까지 그리스에서 공시한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시간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할수록 양의 비정상 발생액이 음의 비정상 발생액보다 더 많았으며, 양의 비정상 발생액이 더 크고,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맞추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이 더 많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덜 투입할수록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수행된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로서 Gist(2015)는 회계법인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입수한 미국의 75개 상장기업의 감사시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가 작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수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학습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의 학습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표본기업의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감사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할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IFRS의 및 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을 계기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감사기준에서는 주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 간의 책임구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감사인의 비율이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까지 주감사인의 책임구분 표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감사인의 비율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주감사인의 감사비율이 높을수록 감사품질도 유의하게 높았으며(박수근·박재환, 2010 ; 최상태 외, 2010), 주감사인의 감사비율이 높을수록 연결재무제표의 보수성이 높아지고(이명곤 외, 2011),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가 수행된다(이명곤 외, 2013)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금까지는 분·반기 검토시간 자료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와 달리 검토시간과 반기검토의 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으나, 2014년부터 감사보고서에 공시되는 분반기 검토시간 자료가 공시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분반기 검토와 관련된 연구로서 손성규와 이은철(2005)은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유용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적정 검토의견이 표명되었을 때 시장에서 주가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비적정 검토의견이 감사의견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적정 검토의견에 대해 음의 주식초과수익률을 보임으로써 반기검토의견의 정보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기검토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후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주가반응이 덜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감사의견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현결과 정재연(2007)은 Big4 제휴법인 여부로 측정한 감사인의 규모와 연차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의 규모와 연차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 반면, 감사인의 규모와 반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반기검토절차의 제한적인 기능으로 인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에 처음으로 감사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공시실태를 점검하고,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던 분반기 검토시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즉,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지 검증한다. 그리고 별도재무제표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이 동일하게 공시되는데, 별도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과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두 모형 간의 분석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고자 한다. 만약 두 모형 간의 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다르다면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야 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반기 검토시간이 공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분반기 검토시간이 연차재무제표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2014년부터 시작된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 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 공시는 10년 이상 계속 되어 오고 있는 반면,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 공시는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처음으로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 기재에 대해서 2014년 12월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에게 작성 지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감사인이 좀 더 주의 깊게 감사시간을 기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 결과 적지 않은 기업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과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가.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의 차이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을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 및 이들 감사시간에 기초하여 추정한 비정상 감사시간의 차이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회귀분석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한다. 만약에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비정상 감사시간 포함)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비정상 감사시간 포함)의 차이가 유의하고, 회귀분석 결과도 유의하게 다르다면 2014년도의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공시했던 감사시간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회귀분석에 포함된 재무제표 변수는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DA_t = \alpha_0 + \alpha_1 AH1(ABAH1)_t + \alpha_2 SIZE_t + \alpha_3 LEV_t + \alpha_4 GRW_t + \alpha_5 CFO_t + \alpha_6 TA_{t-1} + \alpha_7 BIG_t + \alpha_8 FIRST_t + \alpha_9 OWN_t + \alpha_k \Sigma ID + \epsilon \quad (1)$$

$$DA_t = \beta_0 + \beta_1 AH2(ABAH2)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CFO_t + \beta_6 TA_{t-1} + \beta_7 BIG_t + \beta_8 FIRST_t + \beta_9 OWN_t + \beta_k \Sigma ID + \nu \quad (2)$$

DA : 재량적 발생액(수정 Jones 모형 추정 재량적 발생액 또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1 :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BAH1 :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에 기초하여 추정한 비정상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H2 :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BAH2 :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에 기초하여 추정한 비정상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SIZE : 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LEV : 부채비율(기말부채총계/기말자산총계)
GRW : 총자산성장률{(기말자산총계-기초자산총계)/기초자산총계}
CFO : 영업활동 현금흐름/기초자산총계
TA : 총발생액/기초자산총계
BIG :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 : 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WN : 대주주 1인(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
ID : 산업별 더미변수

만약 회귀분석 결과 모형(1)의 모형(2)의 감사시간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다르거나, 두 모형의 수정결정계수가 유의하게 다르다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 중 어떤 감사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귀모형에서 *SIZE*는 모형에서 생략된 변수들의 대용치로 사용되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Ashbaugh et al., 2003 등). *LEV*는 부채비율에 따른 이익조정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포함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부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양의 상관관계(DeFond and Jiambalvo, 1994)가 존재한다는 결과와 음의 상관관계(Ashbaugh et al., 2003)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혼재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더 클 수 있으므로(박현영 외, 2012) *GRW*를 포함하였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자 *CFO*를 포함하였고(Dechow et al., 1995), 전년도 발생액의 반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TA*를 포함하였다(Ashbaugh et al., 2003). 그리고 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별을 통제하고자 *BIG*을 포함하였고(Becket et al., 1998), 초도감사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DeFond and Subramanyam, 1998) *FIRST*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OWN*을 추가하였으며, 산업별 영향을 통제하고자 *ID* 변수를 포함하였다.

모형(1)과 모형(2)에서 재량적 발생액은 Dechow 외(1995)에 따른 수정 Jones 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과 Kothari et al.(2005)에 따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다. 수정 Jones 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DA1)은 다음의 회귀식에서 산업별로 추정한 잔여오차(e_t)로 정의된다.

$$TA_t/A_{t-1} = \alpha_0(1/A_{t-1}) + \alpha_1(\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alpha_2(PPE_t/A_{t-1}) + e_t$$

$$DA1 = TA_t/A_{t-1} - \hat{\alpha}_0(1/A_{t-1}) + \hat{\alpha}_1(\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hat{\alpha}_2(PPE_t/A_{t-1})$$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 현금흐름)
A : 자산총계
 ΔREV : 당기 매출액 변동
 ΔREC : 당기 매출채권 변동
PPE : 유형자산(유형자산총계-토지-건설중인자산)

Jones 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DA1)은 기업의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Kothari et al.(2005)에 따라 다음과 같이 ROA(당기순이익/자산총계 평균) 변수를 추가하여 재량적 발생액(DA2)을 추정하였다.

$$TA_t/A_{t-1} = \alpha_0(1/A_{t-1}) + \alpha_1(\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alpha_2(PPE_t/A_{t-1}) + \alpha_3ROA + e_t$$

$$DA2 = TA_t/A_{t-1} - \hat{\alpha}_0(1/A_{t-1}) + \hat{\alpha}_1(\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hat{\alpha}_2(PPE_t/A_{t-1}) + \hat{\alpha}_3ROA$$

모형(1)과 모형(2)에서 비정상 감사시간(ABAH)은 여러 선행연구(Choi et al., 2006 ; 박현영 외, 2012 ; Caramanis and Lennox, 2008)에서 사용한 다음의 회귀식에 기초하여 추정한 잔여오차(ϵ)로 정의한다. 이때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을 이용한 비정상 감사시간(ABAH1)과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을 이용한 비정상 감사시간(ABAH2)의 두 가지 변수를 각각 추정한다.

$$AH = \beta_0 + \beta_1SIZE + \beta_2SUB + \beta_3XPORT + \beta_4LIQ + \beta_5LEV + \beta_6LOSS + \beta_7ROA + \beta_8FIRST + \beta_9BIG + \beta_k\Sigma ID + \epsilon$$

$$ABAH = AH - \hat{\beta}_0 + \hat{\beta}_1SIZE + \hat{\beta}_2 + \hat{\beta}_3XPORT + \hat{\beta}_4LIQ + \hat{\beta}_5LEV + \hat{\beta}_6LOSS + \hat{\beta}_7ROA + \hat{\beta}_8FIRST + \hat{\beta}_9BIG + \hat{\beta}_k\Sigma ID$$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기업규모와 복잡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인 총자산(SIZE), 연결종속회사 수(SUB)(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국내종속회사와 해외종속회사로 구분), 수출비율(XPORT)를 포함하였으며, 재무위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동비율(LIQ)과 부채비율(LEV)을, 이익조정 가능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손실발생 여부(LOSS)와 수익성(ROA)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초도감사여부(FIRST), 감사인의 규모(BIG) 및 산업별 더미변수(ID)를 추가하였다.

나. 연결재무제표와 감사시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및 비교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다르다면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투입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의 감사품질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을 감사투입시간에 기초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공시된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분석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2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기 시작한 감사시간은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이 포함된 시간인데,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결재무제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1)과 모형(2)의 별도재무제표 변수를 연결재무제표 변수(변수명 뒤에 추가한 c는 연결재무제표 변수를 의미함)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모형(3)과 모형(4)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별도재무제표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DAc_t = \gamma_0 + \gamma_1 AHI(ABAH1)_t + \gamma_2 SIZEc_t + \gamma_3 LEVc_t + \gamma_4 GRWc_t + \gamma_5 CFOc_t + \gamma_6 TAc_{t-1} + \gamma_7 BIG_t + \gamma_8 FIRST_t + \gamma_9 OWN_t + \gamma_k \Sigma ID + \epsilon \quad (3)$$

$$DAc_t = \delta_0 + \delta_1 AH2(ABAH2)_t + \delta_2 SIZEc_t + \delta_3 LEVc_t + \delta_4 GRWc_t + \delta_5 CFOc_t + \delta_6 TAc_{t-1} + \delta_7 BIG_t + \delta_8 FIRST_t + \delta_9 OWN_t + \delta_k \Sigma ID + \epsilon \quad (4)$$

모형(3)과 모형(4)의 분석 목적은 별도재무제표 변수를 이용한 모형(1)과 모형(2)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형(1)과 모형(3), 그리고 모형(2)와 모형(4)는 종속변수와 재무제표 관련 독립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 분석은 곤란하다. 따라서 모형 간 회귀계수 및 수정R²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한 감사시간 분석 결과가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감사시간 분석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연결재무제표 변수에 대해서도 모형(3)과 모형(4)의 감사시간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다르거나, 두 모형의 수정결정계수가 유의하게 다르다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 중 어떤 감사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분반기 검토시간이 회계감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

2014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실시내용에는 분반기 검토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은 전반감사계획부터 기말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감사인은 분기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위험이 높은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 피감사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감사인은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에 기초하여 기말감사계획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피감사회사의 결산일이 12월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부터 3월 사이의 기말감사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반기 검토 과정에서 충분하게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을 인지했다면 기말에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반기 검토시간이 전체 감사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기말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분반기 검토시간이 전체 감사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록 촉박한 기말감사 일정의 제한 속에서 기말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5)을 설정한다.

$$DA_t = \beta_0 + \beta_1 RH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CFO_t + \beta_6 TA_{t-1} + \beta_7 BIG_t + \beta_8 FIRST_t + \beta_9 OWN_t + \beta_{10} ID + \nu \quad (5)$$

RH : 분반기 검토시간/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다른 변수는 모형(1)과 동일함

만약에 분반기 검토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기말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품질이 높아져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한다면 β_1 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형(5)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롯한 재무제표 변수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이용한다.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4년에 처음으로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에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2014년 이전 기간과의 비교를 위해서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과 2013년의 감사시간은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이다. 분석기간 동안 계속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 (4) 적정의견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 (5)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 자료 및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본 연구는 별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가 감사시간과 관련성을 갖는지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 특성이 상이하므로 조건(2)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건(3)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재무제표 금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건(4)에 따라 비적정의견을 받은 표본기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감사시간 및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회계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수작업

으로 수집하였다. 상기 표본선정 절차를 통해하여 최종 1,392개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표본의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변수의 상하 1%를 조정하였다. 표본선정 절차는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표본 선정 절차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비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	2,07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441
12월 결산 법인이 아닌 기업	51
관리 종목에 해당 하는 기업	33
비적정의견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2
재무 자료 및 감사시간 수집을 할 수 없는 기업	154
최종 표본	1,392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수정 Jones 모형에 기초한 재량적 발생액(DA1)보다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DA2)이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AH1)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AH2)의 평균은 유사한 것 같으나, 사업보고서에 기초한 비정상 감사시간(ABAH1)의 평균에 비해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비정상 감사시간(ABAH2)의 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약 72%기업이 Big4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표본기업 중 11%가 초도감사에 해당되었다.

〈표 4〉 기술통계량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i>DA1</i>	-0.002	0.054	-0.111	-0.0009	0.118
<i>DA2</i>	-0.007	0.046	-0.108	-0.005	0.085
<i>DA1c</i>	-0.002	0.054	-0.117	-0.001	0.110
<i>DA2c</i>	-0.005	0.0442	-0.094	-0.004	0.074
<i>AH1</i>	7.432	0.832	0.942	7.313	10.707
<i>AH2</i>	7.463	0.696	6.442	7.344	8.863
<i>ABAH1</i>	0.030	0.289	-0.574	0.017	0.609
<i>ABAH2</i>	0.011	0.268	-0.486	0.0247	0.515
<i>RH</i>	0.442	0.158	0.133	0.429	0.983
<i>SIZE</i>	26.990	1.435	24.768	26.793	29.987
<i>SIZEc</i>	27.212	1.487	24.846	27.002	30.245
<i>LEV</i>	0.429	0.184	0.106	0.443	0.738
<i>LEVc</i>	0.490	0.181	0.167	0.505	0.788
<i>GRW</i>	0.031	0.098	-0.151	0.022	0.274
<i>GRWc</i>	0.041	0.112	-0.171	0.032	0.331
<i>CFO</i>	0.043	0.058	-0.078	0.041	0.155
<i>CFOc</i>	0.048	0.062	-0.081	0.046	0.175
<i>TA</i>	-0.023	0.055	-0.143	-0.019	0.070
<i>TAc</i>	-0.025	0.054	-0.140	-0.021	0.074
<i>BIG</i>	0.722	0.448	0	1	1
<i>FIRST</i>	0.110	0.313	0	0	1
<i>OWN</i>	0.282	0.145	0.07	0.25	0.597

주) 변수설명 : *DA1* ; 수정 Jones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 *DA2*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AH1(AH2)*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ABAH1(ABAH2)*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에 기초하여 추정한 비정상 감사시간, *RH* ; 총 감사시간 대비 분반기 검토시간, *SIZE* ; 기말자산총계의 자연로그값, *LEV* ; 부채비율(기말부채총계/기말자산총계), *GRW* ; 총자산성장률 {(기말자산총계-기초자산총계)/기초자산총계}, *CFO* ; 영업활동 현금흐름/기초자산총계, *TA* ; 총발생액/기초자산총계, *BIG* ;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FIRST* ; 초도감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WN* ; 대주주 1인(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을

2.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의 차이

2014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이 그 이전부터 공시되어 온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과 다르게 기재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표 5>에 요약하였다.

<표 5>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의 공시 현황

감사시간 공시	표본 수
사업보고서 감사시간 = 감사보고서 감사시간	369 (76.4%)
사업보고서 감사시간 > 감사보고서 감사시간	86 (17.8%)
사업보고서 감사시간 < 감사보고서 감사시간	28 (5.8%)
총 표본	483

전체 표본기업 483개 중 76.4%에 해당하는 369개 기업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감사시간을 기재하였으나, 86개 기업은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보다 감사보고서 감사시간이 더 적었으며, 28개 기업은 그 반대로 더 많은 감사보고서 감사시간을 공시하였다. 두 보고서의 감사시간(비정상 감사시간 포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

<표 6> 감사시간 차이분석

Panel A : 전체 표본 483개					
변 수	사업보고서 (평균)	감사보고서 (평균)	차이	t-값	Z-값
감사시간	2,558.0	2,540.4	17.627	0.08	0.44
ln(감사시간)	7.482	7.463	0.019	0.39	0.37
비정상 감사시간	0.063	0.008	0.054	2.73***	2.81***
Panel B : 양자가 불일치한 표본 114개					
변 수	사업보고서 (평균)	감사보고서 (평균)	차이	t-값	Z-값
감사시간	3,619.6	3,545.5	74.093	0.10	0.51
ln(감사시간)	7.5513	7.4702	0.59	0.59	0.51
비정상 감사시간	0.039	-0.060	0.099	2.03**	2.09**

주) 유의수준 : ** ; 5% 미만 유의함. *** ; 1% 미만 유의함

<표 6>의 Panel A는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이분석 결과인데,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Panel B는 두 보고서에서 공시한 감사시간이 동일한 384개 표본을 제외한 118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이분석 결과인데, Panel A와 동일하게 비정상 감사시간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⁶⁾

6) 2014년을 포함한 3개년도 자료이므로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시간만 상관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7〉 상관분석

	DA1	DA2	AH1	ABAH1	SIZE	LEV	GRW	CFO	TA	BIG	FIRST	OWN
DA1	1	0.834 (<0.001)	-0.082 (0.0020)	-0.037 (0.1573)	-0.053 (0.044)	-0.071 (0.007)	0.202 (<0.001)	-0.449 (<0.001)	0.132 (<0.001)	-0.028 (0.284)	0.0001 (0.994)	-0.001 (0.941)
DA2	0.843 (<0.001)	1	-0.072 (0.006)	-0.036 (0.176)	-0.043 (0.101)	0.095 (0.0004)	0.108 (<0.001)	-0.631 (<0.001)	0.117 (<0.001)	-0.050 (0.059)	-0.020 (0.444)	0.015 (0.565)
AH1	-0.10990 (<0.001)	-0.10587 (<0.001)	1	0.417 (<0.001)	0.828 (<0.001)	0.229 (<0.001)	0.052 (0.051)	0.136 (<0.001)	-0.017 (0.523)	0.467 (<0.001)	0.039 (0.142)	-0.001 (0.946)
ABAH1	-0.05172 (0.0536)	-0.06763 (0.0116)	0.40253 (<0.001)	1	0.010 (0.690)	-0.017 (0.515)	-0.108 (<0.001)	0.036 (0.176)	-0.080 (0.002)	-0.012 (0.650)	0.0002 (0.991)	0.009 (0.727)
SIZE	-0.075 (0.005)	-0.073 (0.005)	0.83936 (<0.001)	-0.0097 (0.7162)	1	0.267 (<0.001)	0.121 (<0.001)	0.153 (<0.001)	0.040 (0.1275)	0.440 (<0.001)	0.031 (0.236)	0.025 (0.337)
LEV	-0.090 (0.001)	0.067 (0.011)	0.17453 (<0.001)	-0.0549 (0.040)	0.209 (<0.001)	1	-0.053 (0.0466)	-0.220 (<0.001)	-0.058 (0.029)	0.068 (0.010)	0.022 (0.398)	0.048 (0.072)
GRW	0.267 (<0.001)	0.163 (<0.001)	0.02737 (0.307)	-0.0999 (0.0002)	0.085 (0.001)	-0.061 (0.022)	1	0.230 (<0.001)	0.143 (<0.001)	0.076 (0.004)	-0.022 (0.391)	0.070 (0.008)
CFO	-0.429 (<0.001)	-0.667 (<0.001)	0.1711 (<0.001)	0.0564 (0.035)	0.184 (<0.001)	-0.192 (<0.001)	0.147 (<0.001)	1	-0.079 (0.002)	0.126 (<0.001)	0.016 (0.539)	0.050 (0.060)
TA	0.077 (0.003)	0.058 (0.027)	-0.0192 (0.4740)	-0.0932 (0.0005)	0.025 (0.342)	-0.084 (0.001)	0.134 (<0.001)	-0.032 (0.225)	1	0.028 (0.280)	-0.034 (0.200)	0.077 (0.004)
BIG	-0.054 (0.042)	-0.049 (0.065)	0.4665 (<0.001)	0.0057 (0.829)	0.442 (<0.001)	0.060 (0.025)	0.076 (0.004)	0.138 (<0.001)	0.030 (0.260)	1	-0.068 (0.010)	0.126 (<0.001)
FIRST	-0.016 (0.542)	-0.026 (0.331)	0.0256 (0.3386)	0.0049 (0.855)	0.020 (0.447)	0.031 (0.244)	-0.007 (0.776)	0.009 (0.720)	-0.061 (0.021)	0.077 (0.003)	1	-0.028 (0.292)
OWN	-0.005 (0.846)	-0.004 (0.866)	-0.00179 (0.946)	-0.0015 (0.955)	0.030 (0.251)	0.062 (0.020)	0.065 (0.014)	0.018 (0.483)	0.081 (0.002)	0.129 (<0.001)	-0.025 (0.333)	1

주) 우하향 대각선 아래쪽은 별도재무제표 상관계수를, 대각선 위쪽은 연결재무제표 상관계수를 표시함(Pearson 상관계수)
 변수 설명 : <표 4>의 변수설명 참조

본 연구의 관심은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시간의 상관관계이다.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시간은 DA1과 DA2에 대해서 모두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비정상 감사시간은 DA1에 대해서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DA2에 대해서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한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시간은 DA1과 DA2에 대해서 모두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비정상 감사시간은 DA1과 DA2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간 및 비정상 감사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요약하였다.

<표 8>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한 2014년도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의 관심변수는 감사시간(AH)과 비정상 감사시간(ABAH)인데, 종속변수의 재량적 발생액을 무엇으로 하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DA1에 대해서 독립변수를 사업보고서 상 감사시간(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으로 하든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으로 하든 수정결정계수도 거의 같아 회귀계수나 수정결정계수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GRW와 CFO 변수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와 동일하며, LEV 변수는 DA1과는 대체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DA2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SIZE는 DA2의 3개 모형에서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TA, BIG, FIRST 및 OWN 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감사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공시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 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이 일치되도록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기재할 때 확인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8〉 회귀분석 결과(n=483)

변수	종속변수							
	DA1				DA2			
절편	0.002 (0.05)	-0.026 (-0.51)	0.009 (0.21)	0.013 (0.30)	-0.056 (-1.50)	-0.074 ^{***} (-1.99)	-0.05 (-1.55)	-0.048 (-1.48)
AH1	-0.002 (-0.43)				-0.001 (-0.44)			
AH2		-0.009 (-1.56)				-0.006 (-1.42)		
ABAH1			0.011 (1.49)				0.006 (1.22)	
ABAH2				0.006 (0.83)				0.003 (0.57)
SIZE	0.001 (0.66)	0.004 (1.60)	0.001 (0.59)	0.0009 (0.53)	0.003 (1.40)	0.004 ^{**} (2.20)	0.002 [*] (1.86)	0.002 [*] (1.81)
LEV	-0.047 ^{***} (-3.84)	-0.047 ^{***} (-3.85)	-0.045 (-3.70)	-0.046 ^{***} (-3.77)	-0.004 (-0.52)	-0.004 (-0.52)	-0.003 (-0.41)	-0.004 (-0.47)
GRW	0.155 ^{***} (7.09)	0.154 ^{***} (7.07)	0.158 ^{***} (7.22)	0.157 ^{***} (7.16)	0.087 ^{***} (5.48)	0.086 ^{***} (5.46)	0.089 ^{***} (5.59)	0.088 ^{***} (5.53)
CFO	-0.523 ^{***} (-13.47)	-0.523 ^{***} (-13.51)	-0.523 ^{***} (-13.50)	-0.522 ^{***} (-13.46)	-0.630 ^{***} (-22.35)	-0.63 ^{***} (-22.41)	-0.63 ^{***} (-22.38)	-0.629 ^{***} (-22.34)
TA	-0.036 (-0.88)	-0.042 (-1.02)	-0.027 (-0.66)	-0.03 (-0.72)	-0.032 (-1.05)	-0.035 (-1.18)	-0.026 (-0.87)	-0.028 (-0.93)
BIG	-0.003 (-0.68)	-0.001 (-0.26)	-0.004 (-0.81)	-0.004 (-0.82)	0.002 (0.53)	0.003 (0.88)	0.001 (0.45)	0.001 (0.44)
FIRST	0.003 (0.64)	0.004 (0.68)	0.004 (0.72)	0.003 (0.64)	0.002 (0.58)	0.002 (0.61)	0.002 (0.64)	0.002 (0.58)
OWN	0.00 (-0.02)	-0.001 (-0.13)	-0.0004 (-0.03)	-0.0001 (-0.01)	0.001 (0.12)	0.0002 (0.03)	0.001 (0.12)	0.001 (0.14)
ID	included							
F 값	10.86	11.01	10.99	10.89	23.70	23.88	23.83	23.71
Adj.R ²	0.32	0.32	0.32	0.32	0.52	0.52	0.52	0.52

주) 유의수준 : *** ; 1% 미만 유의함. ** ; 5% 미만 유의함. * ; 10% 미만 유의함.

변수설명 : <표 4> 참조

3. 별도재무제표 변수와 연결재무제표 변수의 차이

2014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에는 전체 감사시간 중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감사에 몇 시간이나 투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2014년부터 신 회계감사기준(New ISA)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주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타감사인과의 책임구분을 명기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지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어 왔던 감사시간이 연결재무제표 감사까지 포함된 감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요약하였다.⁷⁾

<표 9> 회귀분석 결과

재무제표 구분	변 수	종속변수			
		DA1		DA2	
2014년(n=483)					
별도 재무제표	AH1	-0.002(-0.43)		-0.001(-0.44)	
	ABAH1		0.011(1.49)		0.006(1.22)
	Adj.R ²	0.32	0.32	0.52	0.52
연결 재무제표	AH1	-0.042(-0.54)		-0.052(-0.76)	
	ABAH1		0.040(1.06)		0.049(1.47)
	Adj.R ²	0.30	0.31	21.49	21.63
2013년(n=456)					
별도 재무제표	AH1	-0.032(-0.66)		0.012(0.30)	
	ABAH1		0.002(0.49)		0.011(0.51)
	Adj.R ²	0.38	0.38	0.54	0.54
연결 재무제표	AH1	-0.047(-0.69)		0.014(0.25)	
	ABAH1		0.006(0.15)		0.013(0.39)
	Adj.R ²	0.32	0.32	0.47	0.47
2012년(n=453)					
별도 재무제표	AH1	-0.116(-1.98)**		-0.002(-1.05)	
	ABAH1		-0.002(-0.47)		0.002(0.57)
	Adj.R ²	0.34	0.35	0.52	0.52
연결 재무제표	AH1	-0.036(-0.49)		-0.019(-0.32)	
	ABAH1		0.017(0.47)		0.005(0.18)
	Adj.R ²	0.43	0.43	0.61	0.61

주) 유의수준 : *** ; 1% 미만 유의함.

변수설명 : <표 4> 참조

7) <표 9>에 감사시간 이외의 변수는 생략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표 8>과 거의 유사하다. 연도별 표본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2014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매년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표 10>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연도별 표본기업 수가 다소 차이가 있다.

<표 9>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보고서 감사시간(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의 회귀계수만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별도재무제표의 DA1만 제외하고 다른 연도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시간 및 비정상 감사시간은 DA1과 DA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포함한 전체감사시간과 별도재무제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였더라도 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감사시간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박현영 외 2012)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시간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연결재무제표는 물론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감사시간이나 비정상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기간을 3년 더 확장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10>에 요약하였다.

〈표 10〉 회귀분석 결과

재무제표 구분	변 수	종속변수			
		DA1		DA2	
2011년(n=401)					
별도 재무제표	AHI	0.008(0.13)		-0.012(-0.24)	
	ABAH1		0.058(1.63)		0.040(1.41)
	Adj.R ²	0.44	0.45	0.64	0.64
연결 재무제표	AHI	0.011(0.14)		-0.011(-0.15)	
	ABAH1		0.031(0.72)		0.009(0.25)
	Adj.R ²	0.37	0.37	0.50	0.50
2010년(n=352)					
별도 재무제표	AHI	-0.064(-1.03)		-0.011(-0.21)	
	ABAH1		-0.009(-0.26)		0.014(0.49)
	Adj.R ²	0.44	0.44	0.60	0.60
연결 재무제표	AHI	0.104(1.43)		0.083(1.23)	
	ABAH1		0.114(2.81)		0.071(1.89)
	Adj.R ²	0.46	0.47	0.54	0.54
2009년(n=300)					
별도 재무제표	AHI	-0.127(-1.96)**		-0.091(-1.64)*	
	ABAH1		-0.016(-0.43)		-0.015(-0.46)
	Adj.R ²	0.39	0.39	0.54	0.54
연결 재무제표	AHI	0.021(0.27)		0.122(1.60)	
	ABAH1		0.034(0.76)		0.091(2.08)
	Adj.R ²	0.43	0.43	0.44	0.45

주) 유의수준 : *** ; 1% 미만 유의함. ** ; 5% 미만 유의함. * ; 10% 미만 유의함.

변수설명 : <표 4> 참조

<표 10>의 회귀분석 결과도 <표 9>의 회귀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도 DA1과 DA2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의 감사시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뿐 다른 연도의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시간 및 비정상 감사시간 모두 재량적 발생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코스피 상장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4. 분반기 검토시간이 회계감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총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이 구분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11>에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의 현황 및 차이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11> 분반기 검토시간 현황(n=483)

Panel A : 분반기 검토시간				
분반기 검토시간	검토시간		검토시간/총 감사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587	0.931	0.454	0.233
제조업	6,473	0.899	0.441	0.252
서비스업	6,732	0.781	0.458	0.147
도소매업	6,743	1.010	0.462	0.197
건설업	7,106	1.159	0.452	0.170
정보통신업	6,861	1.101	0.540	0.268

Panel B : 분반기 검토시간 차이분석					
변 수	Big	Non-Big	차이	t-값	Z-값
분반기 검토시간	6,872	5,906	966	13.29***	8.74***
검토시간/ 총 감사시간	0.487	0.375	0.112	5.93***	5.73***

주) 유의수준 : *** ; 1% 미만 유의함.

<표 11>의 Panel A를 보면 분반기 검토시간의 평균은 6,587시간으로 총 감사시간 중 약 45.4%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의 분반기 검토시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많으며,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의 총 감사시간 대비 검토시간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Panel B는 감사인의 규모별로 분반기 검토시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Big4 제휴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해서 분반기 검토시간을 유의하게 더 많이 투입할 뿐만 아니라 총 감사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Big4 제휴 감사인은 총 감사시간 중 48.7%의 시간을 분반기 검토과정에 투입하는 반면, Non-Big4 감사인은 총 감사시간 중 37.5%의 시간을 분반기 검토과정에 투입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감사시간에서 분반기 검토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말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 뿐만 아니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도 사용하였다.

<표 12> 회귀분석 결과(n=483)

변수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DA1	DA2	ABSDA1	ABSDA2	DA1	DA2	ABSDA1	ABSDA2
절편	-0.04 (-0.80)	-0.076 (-2.11)**	0.003 (0.10)	0.044 (1.38)	0.057 (1.14)	-0.027 (-0.80)	0.05 (1.43)	0.08 (2.92)***
RH	-0.143 (-2.56)***	-0.104 (-2.24)**	-0.195 (-3.10)***	-0.054 (-0.86)	-0.073 (-1.32)	-0.09 (-1.88)*	-0.065 (-1.07)	0.004 (0.08)
SIZE	0.111 (1.93)*	0.125 (2.61)**	0.077 (1.18)	-0.03 (-0.47)	0.011 (0.20)	0.085 (1.68)*	-0.032 (-0.50)	-0.113 (-1.71)*
LEV	-0.168 (-4.04)***	-0.022 (-0.66)	0.204 (4.35)***	0.069 (1.45)	-0.171 (-4.22)***	-0.063 (-1.81)*	0.121 (2.75)***	0.031 (0.69)
GRW	0.275 (6.81)***	0.198 (5.89)***	0.028 (0.61)	0.063 (1.37)	0.246 (6.04)***	0.229 (6.50)***	0.035 (0.80)	0.04 (0.89)
CFO	-0.561 (-13.61)***	-0.785 (-22.8)***	0.02 (0.44)	0.19 (4.04)***	-0.587 (-13.73)***	-0.765 (-20.64)***	0.051 (1.12)	0.158 (3.30)***
TA	-0.019 (-0.49)	-0.011 (-0.35)	-0.129 (-2.88)***	-0.117 (-2.60)**	0.05 (1.30)	0.036 (1.07)	-0.11 (-2.60)***	-0.133 (-3.05)***
BIG	-0.016 (-0.37)	0.037 (1.03)	0.00009 (0.00)	-0.018 (-0.36)	0.014 (0.33)	0.006 (0.18)	0.067 (1.43)	0.038 (0.79)
FIRST	0.025 (0.68)	0.017 (0.55)	-0.004 (-0.09)	-0.026 (-0.61)	0.048 (1.29)	0.025 (0.77)	0.011 (0.29)	0.019 (0.45)
OWN	0.001 (0.03)	0.004 (0.14)	0.065 (1.48)	0.046 (1.04)	-0.0001 (0.00)	0.054 (1.60)	0.014 (0.33)	-0.008 (-0.20)
ID	included							
F 값	11.40	24.93	4.64	4.01	10.96	21.70	6.04	4.40
Adj.R ²	0.33	0.53	0.14	0.12	0.31	0.48	0.18	0.13

주) 유의수준 : *** ; 1% 미만 유의함. ** ; 5% 미만 유의함. * ; 1% 미만 유의함.

변수설명 : ABSDA ; DA의 절대값, RH ; 총 감사시간 대비 분반기 검토시간, 나머지 변수는 <표 4>의 변수 설명 참조

<표 12>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에 ABSDA2를 제외한 재량적 발생액과 RH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반기검토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효율적인 연차재무제표 감사가 이루어져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DA2에 대해서만 RH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에 투입된 감사시간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연결재무제표 감사라는 것이 지배기업과 다수의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상계 및 주식 공시사항의 점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배기업의 분반기 검토시간과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발생액 간에 유의한 관련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의 공시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분반기 검토시간 공시자료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와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기업 중 23%에 해당되는 기업의 외부감사실시내용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시간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비록 차이분석 결과 양자의 감사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의 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의 회귀분석 결과와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의 회귀분석 결과도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지만, 정보이용자의 혼란과 감사시간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기재할 때 외부감사실시내용에 표시된 감사시간을 확인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비록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정보이용자가 별도재무제표 감사시간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이 동일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환경 하에서 연결감사시간이 구분표시되지 않는 것은 공시자료 유용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총 감사시간 중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분표시함으로써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분반기 검토시간이 구분표시되어 있는데, 회귀분석 결과 전체 감사시간 중 분반기 검토시간의 비중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 검토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연도말 재무제표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분반기 검토시간을 구분 표시하고 있는 외부감사실시내용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실시내용의 표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감사참여인원을 표시할 때 감사과정 중 투입인원이 변동되더라도 감사업무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일인당 감사시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추가 투입인원만 표시하고 대체인원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외국어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발행시간의 포함 여부 등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 산정기준과 감사보고서의 산정기준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일시켜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감사시간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외부감사실시내용에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제외한 감사시간을 표시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외부감사실시내용에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을 구분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실시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기검토시간 정보의 유용성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를 시행한 첫 해의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 관련 자료가 누적될 때 본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분석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 김문철 ·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47-76.
- 권수영 · 신현걸 · 정재연. 2006.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 175-202.
- 김기영 · 박희우 · 박경진 · 송문섭. 2015.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의 유용성 향상 및 회계감독 활용방안 관련 연구”. 금융감독원 연구보고서.
- 김성환 · 하미혜 · 이호영. 2009. “감사시간의 보고행태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4권 제1호 : 241-273.
- 류승우 · 이종천 · 김응길 · 한승수. 2015. “감사기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4호 : 213-246.
- 마희영 · 권수영. 2010.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51호 : 119-155.
- 박수근 · 박재환. 2010. “연결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연결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1호 : 175-197.
- 박종일 · 곽수근. 2010. “유가증권, 코스닥 및 비상장기업의 기대감사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 267-304.
- 박종일 · 최 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 257-293.
- 박현영 · 이호영 · 강민정. 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 후 이익조정과 감사투입시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54권 제2호 : 529-564.
- 손성규 · 이은철. 2005.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1-34.
- 이명곤 · 장석진 · 인창열. 2013. “주감사인 비율과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효과성 및 효율성”. 회계저널 제22권 제1호 : 147-174.
- 신현걸 · 정재연. 2007. “감사인의 규모가 반기재무제표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27-46.
- 이명곤 · 장석진 · 조상민. 201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회계와감사연구 제54권 제2호 : 473-504.
- 이명곤 · 최상태 · 장석진. 2011.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보수성의 결정요인 : 주감사인의 규모와 감사비율”.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1호 : 75-96.
- 이창섭 · 최우석 · 배성호. 2012. “실제이익조정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경영학연구 제41권 제4호 : 757-787.

- 전규안 · 박종일. 2014. “비정상 감사시간이 신용등급과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9-55.
- 정태범 · 박희우. 2006. “감사기간 공시의 적정성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57-83.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기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9-76.
- 최상태 · 이명곤 · 장석진. 2010. “연결재무제표 주감사인의 규모, 감사비율과 감사품질”. 회계저널 제19권 제3호 : 1-29.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3) : 611-639.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 1-24.
- Caramanis C., and C. Lennox. 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 : 116-138.
- Choi, J.H., C. Kim, J.B. Kim and Y. Zang. 2010. Audit Office Size, Audit Quality, and Audit Pricing.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 : 73-97.
- Chun, Hong Min. and Rhee, Chang Seop. 2015. Analyst coverage and audit efforts : Empirical approach to audit hour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1(3) : 795-808.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 193-225.
- DeFond, M. L. and Jiambalvo, J..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1) : 145-176.
- DeFond, M. L. and K. R.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1) : 35-67.
- Gist W. E. 2008. An Analysis of Firm Level Audit Tenure on Audit Hours.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24(4) : 29-50.
- Hoitash, R., Markelevich, A. and Barragato, C. A. 2007. Auditor fees and audit quality.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8) : 761-786.
- Kothari, S. P.,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 163-197.

A Study on the Disclosure about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 With an Emphasis on Audit Hours -

Hyun Geol Shin* · Su Jin Jeong**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and analyses them being attached to the auditor's report according to the revised external audit law of Korea in 2014.

We find 23% of sample firms' audit hours on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are different from those on the annual report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audit hours on the annual report before it is issued in order to keep the reliability of audit hour data. And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attached to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udit reports are the same as those attached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reports. It may lead the financial statements users to misunderstand that the audit hours of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o it is necessary to disclose separately the audit hours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Finally, we find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view hours and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is result means the more time auditors spend for the interim financial statement review, the more efficiently year-end audit c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o that we suggest the number of audit participants should not be included double and the total audit hours should include the time for preparing for audit report with foreign language on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Key words〉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audit hours, discretionary accrual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shinhg@konkuk.ac.kr, First Author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jsj0904@konkuk.ac.kr, Corresponding Author